

## 사상장부론을 중심으로한 동무의 음양관

金 恩 叔\*

### I. 緒 論

1894년 東武 李濟馬에 의해 완성된 四象醫學은 既存의 陰陽五行說에 바탕을 둔 韓醫學과는 달리 性情의 偏差에 따라 네 가지 體質로 臟腑의 大小가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生理, 病理, 治法, 養生이 달라져야 된다는 體質醫學이다. 기존의학은 正氣虛와 邪氣實의 여부로 疾病을 다루었으나 四象醫學은 正氣의 偏差에 따른 個體의 特殊性에 중점을 두고 上下를 調節하는 均衡醫學이다. 李濟馬는 四象醫學의 哲學의 바탕을〈格致藁〉에 두고 醫學的 內容으로〈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게 되었다. 『性命論』은 人間을 巨視的 視覺, 宇宙, 社會論的 視覺으로 보아 四象醫學 理論을 說明하는데 있어서 核心인 天人性命의 四元構造를 밝히고 『四端論』에서 人趨心然, 人稟臟理를 前提로 하여 哀怒喜樂의 性情의 相成, 相資의 原理와 順動, 逆動의 原理를 통하여 臟腑의 大小에 의한 四象人의 성립 과정을 밝히고 『擴充論』에서 四象人의 臟局의 形成原理와 性情氣의 特徵 및 反省하고 警戒할 條件을 提示하였다.

이와 같이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을 통한 四象

哲學은 비로소 『臟腑論』에서 水穀의 代謝過程과 生成된 四氣의 四黨內의 循環 및 四黨內의 循環에 관여하는 天機의 聽視嗅味之力과 人事의 哀怒喜樂之力을 통해 四象醫學의 生理觀으로 具體化된다. 『臟腑論』은 기존의학이 陰陽五行說을 바탕으로 人間을 天人相應의 觀點에서 小宇宙로 파악하고, 臟腑를 五行의 屬性에 따라 比類聚象하여 다섯 가지로 系列化 시켰던 것과는 李濟馬 나름대로의 독특한 개념인 四焦, 四氣, 四臟, 四腑, 前四海, 後四海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四象臟腑論을 理解하는데 있어서는 既存의 用語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李濟馬에 의해 어떻게 理解되어 쓰여지고 있으며, 어떤 새로운 概念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한 理解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本論文에서는 臟腑論에 대한 內容을 中心으로 李濟馬가 人體의 構造를 設定한 方法 및 그것이 既存의 人體構造 設定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그것을 陰陽論의 으로 어떻게 理解할 수 있는지에 대해 既存醫學과의 比較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3학년

## Ⅱ. 本 論

### 1. 人體에 대한 構造的 理解

#### 1) 陰陽論의 理解

既存醫學體系에 있어 氣裏形表精神에 의하여 內部の 狀態는 相應하는 外部를 통해 알 수 있다는 形象醫學的인 面을 <內經>이나 <東醫寶鑑>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四象醫學에 이르러서는 體質的(差等的) 形象醫學으로 발전되었다. 既存醫學에서 人體의 五臟을 관찰하는 方法을 體用으로 구분해 보면 耳目鼻口를 통해 五臟을 관찰함은 五臟의 用的 把握<sup>1)</sup>으로 볼 수 있고 軀幹을 中心으로 함은 五臟의 體局을 表示하는 것<sup>2)</sup>으로 類推해 볼 수 있다. 四象醫學은 性情에 의한 人體臟器의 構成이나 前後四海의 運行을 解析함에 있어, 天機를 觀察하는 耳目鼻口와 人事에 應(行)하는 肺脾肝腎의 狀態를 보고 類推解釋할 수 있는데 耳目鼻口는 얼굴에 있으며 肺脾肝腎은 軀幹을 構成함을 알 수 있다.

既存醫學에 있어서 얼굴을 觀察하는 方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얼굴 형태(발)를 보고 陰陽을 구분하는 것이고, 둘째는 耳目鼻口(種子)를 보고 陰陽을 구분하는 것이다. 얼굴 형태로

陰陽을 구분하는 것은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나오는 “積陽爲天 積陰爲地”의 理論을 適用하여 上下의 盛衰를 보고 陰陽을 나눌 수 있어 天垂는 陽이 되고 地積은 陰이 된다.

耳目鼻口는 耳目과 鼻口로 二分하면 耳目은 陽이고 鼻口는 陰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分化된 陰陽을 形態的인 面에서 다시 陰陽氣血로 세분하면 耳는 縱으로 생겨 陽中陽(氣), 目は 橫으로 생겨 陽中陰(血), 鼻는 縱으로 생겨 陰中陽(氣), 口는 橫으로 생겨 陰中陰(血)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故로 耳와 鼻는 氣로 目과 口는 血로 上下가 對應한다 할 수 있다. 軀幹(몸통)은 크게 上下로 二分하여 心肺와 肝腎部位로 二分해 볼 수 있는데 理論的 根據는 다음과 같다.

“心肺損而色弊, 肝腎損而形” <保命><sup>3)</sup>

“心 居肺下肝上” <入門><sup>4)</sup>

“膈者 心肺之分野也” <綱目><sup>5)</sup>

“心肺居胸背, 心熱則胸熱, 肺熱則背熱, 肝膽居脇, 肝膽熱則當脇亦熱, 腎居腰, 腎熱則當腰亦熱, 胃 居臍上, 故胃熱則臍以上熱.” <綱目><sup>6)</sup>

“腰者腎之外候” <入門><sup>7)</sup>

이와 같이 軀幹에도 五臟의 部位가 配屬되어 脾를 中心으로 心肺를 上部(陽)로, 肝腎은 下部(陰)로 配屬해 볼 수 있다.

1. “此事難知에 曰 天六腑는 氣表니 其體在上하되 其用在下하고(膽胃膀胱大小腸) 地五臟은 血裏니 其體는 在下하고 其用은 在上하니(耳目鼻口) 言陰陽이 互相爲用 則天氣左旋而下降하고 地氣 右旋而上升하야 氣血이 化하고 表裏靜하야 上下通이 如天地之泰然하니 人身이 其小天地乎” --<醫學入門>  
 2. “心 居肺下肝上” <入門> “膈者 心肺之分野也” <綱目>  
 “腰者 腎之外候” <入門> “肝膽之脈 布脇肋 助者肋骨也” <銅人>  
 3.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大星文化社 p. 17 . 1992.  
 4. 許浚, 東醫寶鑑, <內景, 外形篇>. 大星文化社 p. 139. 1992.  
 5. 許浚, 東醫寶鑑, <內景, 外形篇>. 大星文化社 p. 389. 1992.  
 6.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大星文化社 p. 166 . 1992.  
 7. 許浚, 東醫寶鑑, <內景, 外形篇>. 大星文化社 p. 423 . 1992.

한편 李濟馬『性命論 自註』<sup>8)</sup>에 天機를 解釋함에 있어 天不足 西北이고 地不滿 東南이라 하여 天時의 氣運은 耳目을 通해서 그리고 地方의 氣運은 手足을 通해 解釋하였다. 陽人(天)은 下焦(地) 不足으로 太少陽人은 左手足이 右手足만 못하여 行去之力에 있어 太少陽人의 手足은 太少陰人의 手足에 미치지 못하고, 陰人(地)은 上焦(天) 不足으로 太少陰人의 右耳目은 左耳目만큼 聰明치 못하여 視聽之力은 太少陰人의 耳目이 太少陽人의 耳目에 미치지 못한다 하였고, 또한 『辨證論』에도 少陽人의 體型은 上體가 盛하고 下體가 弱하다했고, 太陽人 女子 體型은 壯實하지만 肝部位가 弱하여 出産(生殖力)이 不足하다<sup>9)</sup> 하여 上下體의 陰陽相對의 不均衡을 提示했다. 즉 四象醫學에서 人體의 構造를 把握함에 있어 既存의 形象醫學과 類似하게 上盛下虛, 上虛下盛등으로 人體 上下體의 陰陽相對의 不均衡을 基準으로 把握했음을 알 수 있다.

## 2) 四焦論의 理解

四象臟腑論에서는 上下라는 陰陽偏差를 두어 中焦(中上焦, 中下焦)를 中心으로, 上焦, 中下焦, 下焦등으로 四焦의 構造를 設定하여 四臟(肺, 脾, 肝, 腎)은 頤下背上, 腎, 腰, 腰脊下등 人體의 後面에 배치하였고, 四腑(胃脘, 胃, 小腸, 大腸)는 頤下胸上, 膈, 臍, 臍腹下등의 人體의 全面에 배치하였다.

기존 의학에서 三焦는

“三焦者 元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臟六腑”-『難經. 66難』,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素問. 靈蘭秘傳論』,

“上焦出於胃上口 竝咽以上 貫膈而布胸中 … 中焦亦竝胃中 … 下焦者 別回腸. 注于膀胱而滲入焉 … 上焦如霧 中焦如 下焦如瀆 …”-『靈樞. 營衛生會』

“三焦者, 人生三元之氣 臟腑空處是也 上焦心肺居之 中焦脾胃居之 下焦肝腎膀胱大 小腸居之 其氣總領臟腑營衛經絡內外左右上下之氣 三焦通則竟體調和 斯氣職已

三焦之病屬於臟腑 皆無別立病名”〈筆花醫鏡〉라 하여 元氣之別使로서 氣化作用을 일으키고 水液代謝를 調節하는 通路로서의 의미와 上中下에 의한 部位로서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上中下焦는 機能과 部位라는 兩面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三焦의 部位的 區分을 보면 上焦(心, 肺), 中焦(脾, 胃), 下焦(肝腎大腸膀胱)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具體的 作用部位에 대한 설명으로 背熱은 肺의 部位에 屬한다 하여 背를 肺의 部位로, “脾胃 主中洲 大腹小腹 是其候也”라 하여 大腹小腹을 脾의 部位로, 肝膽之脈은 脇肋에 布한다 하여 脇을 肝의 部位로, “腰者 腎之府”라 하여 腰를 腎의 部位<sup>10)</sup>로 보았다. 이상의 三焦의 部位와 臟器의 相應部位는

8. 地方은 卽少陰이니 兌上絶 西方오, 人倫은 卽太陰이니 坎中連 北方也라. 此兩方은 閨鎖左上하 니 地有餘 天不足之方이 니라. 故로 一曰 地方云하다. 蓋太少陰人之上焦不足은 卽 天不足西北而 然卽 右耳目이 不如左耳目이니라. 右耳目은 太少陰之耳目이 不如太少陽之耳目이니 視聽 之力이 不及也니라.

世會는 卽少陽 巽下絶 東方也오, 天時는 卽 太陽離虛中 南方也니 此兩方은 闕鎖右下하 니 天有 餘地不滿之方이니라. 故로 四曰 天時云하다. 蓋太少陽人之下焦不足은 卽 地不滿東南而然卽 左手足이 不如 右手足이니라. 左手足은 太少陽人之 手足이 不如 太少陰人之手足이니 行去之力이 不及也니라.

9. 少陽人 體型 上盛下虛 胸實足輕 剽銳好勇 …, 太陽女 體型壯實而 肝小狹窄 子宮不足 …

10. “背熱屬肺 肺居上焦故로 熱應於背”〈入門〉-東醫寶鑑, 〈內景, 外形篇〉. 大星文化社. p. 166.

“心 居肺下肝上”〈入門〉

“膈者 心肺之分野也”〈綱目〉

“肩背痛屬肺分野”〈綱目〉-東醫寶鑑. 〈內景, 外形篇〉. 大星文化社. p. 387.

“脾胃主中州 大腹小腹 是其候也”〈類聚〉-東醫寶鑑. 〈內景, 外形篇〉. 大星文化社. p. 414.

『四端論』의 逆動之氣가 臟腑를 傷하는 部位<sup>11)</sup>와 유사하며 四焦의 部位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李濟馬는 既存의 醫學과 동떨어져 四焦를 設定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哲學的 틀인 四元構造로 四焦를 設定하게 되었으며 이 四焦를 기준으로 각 四象人마다 盛壯하고 孤弱한 곳을 갖게 되는 『辨證論』의 體形氣象을 이끌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李濟馬에 의해 설정된 四焦는 體形氣象<sup>12)</sup>을 판단하기 위한 定位의 概念이며 上下陰陽偏差에 따른 대립적인 氣의 升降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四焦의 區分은 아래와 같다.

	四焦의 部位	四臟	四臟의 部位	四腑	四腑의 部位
上焦	背上胸上以上	肺	頭下背上	胃脘	額下胸上
中上焦	膈之間	脾	背	胃	膈
中下焦	腰臍之間	肝	腰	小腸	臍
下焦	脊下臍下以下	腎	腰脊下	大腸	臍腹下

### 3) 對對의 理解

四象醫學의 本體論의 四元構造의 表現인 天人性

命을 分析함에 있어서는 각 자체 要素를 解釋하는 方法과 全體次元의 天과人/性과命의 관계, 天機次元의 天과性 人과命의 關係, 人事次元의 天과命/人과性의 對對關係로 相互 聯關性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分析은 四象醫學 理論의 說明에 또한 適用된다. 人體의 構成과 生理 및 病理에 適用되는 耳目鼻口(天), 肺脾肝腎(人), 臍臍腹(知, 性), 頭肩腰腎(行, 命)의 四元構造內에서의 相互關係는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全體 次元: 天→人, 性→命: 耳目鼻口→肺脾肝腎, 臍臍腹→頭肩腰腎  
 天機 次元(性): 天→性, 人→命: 耳→鼻/目→口, ←臍/臍→腹, 太陽→太陰  
 人事 次元(情): 天→命, 人→性: 肺→腎/脾→肝, 頭→腎/肩→腰, 太陰→素養

### 4) 四臟의 機能的 大小

性情은 喜怒哀樂으로 代表되는데 性是 天機를 察하여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sup>13)</sup>에 應하고 情은 人事에 行하여 肺脾肝腎의 哀怒喜樂之情<sup>14)</sup>을 유발한

“肝膽之脈 布脇肋 肋者肋骨也”〈銅人〉-東醫寶鑑.〈內景, 外形篇〉. 大星文化社. p. 429.

“腰者腎之外候 一身所持以轉移開闔者也”〈入門〉-東醫寶鑑.〈內景, 外形篇〉. 大星文化社. p. 423.

“腰者腎之腑 轉搖不能 腎將德矣 …”〈素問. 脈要精微論〉

11. 頻起怒而 頻伏怒則 腰脇 頻迫而頻蕩也 腰脇者 肝之所住着處也 腰脇 迫蕩不定則 肝 其不傷乎 乍發喜而 乍受喜則 胸腋 乍闊而乍狹也 胸腋者 脾之所住着處也 胸腋 闊狹不定則 脾 其不傷乎 忽動哀而 忽止哀則 脊曲 忽屈而忽伸也 脊曲者 腎之所住着處也 脊曲 屈伸不定則 腎 其不傷乎 屢得樂而 屢失樂則 背 頁 暴揚而暴抑也 背 頁者 肺之所住着處也 背 頁 抑揚不定則 肺 其不傷乎 --『四端論』.
12. 太陽人 體形氣象 腦 頁之起勢 盛壯而 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 體形氣象 胸襟之包勢 盛壯而 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 體形氣象 腰圍之立勢 盛壯而 腦 頁之起勢 孤弱 少陰人 體形氣象 膀胱之坐勢 盛壯而 胸襟之包勢 孤弱 --『辨證論』.
13. 耳屬神하니 無形之物故로 能聽天時輕清 無形之聲하고 目屬靈하니 有像之物故로 能視世會浮 動 有像之色하고 鼻屬魂하니 無跡之物故로 能嗅人倫沈靜 無跡之像하고 口屬魄하니 有質之物 故로 能味地方重濁 有質之滋也나라. --『性命論自註』.

다. 哀怒喜樂之性(哀性遠散, 怒性宏抱, 喜性廣張, 樂性深確)은 臟器에 注하여 盛하게 하고 哀怒喜樂之情은 促急하여 臟器를 削하게 하므로 臟器의 大小가 생겨 體質에 따른 臟腑를 形成하게 된다. 臟腑論의 前四海에 해당되는 臆臍腹에는 邪心이 있어 극복해야 될 知의 次元<sup>15)</sup> 으로 存心養性해야 絶世의 知가 될 수 있고 後四海에 해당되는 頭肩腰腎에는 怠心(行)이 있어 극복해야 될 行의 次元<sup>16)</sup>으로 修身立命해야 大人의 能力이 나오게 된다. 각 體質에 따른 臟器의 大小를 原理論에 立脚해 類推해 볼 수 있는데 各 體質에 대한 大小基準은 위에서 언급한 對待의 關係로 解析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아래에 提示된 內容과 같다. 太陽人을 例로 들어 보면, 天機 次元의 對待 關係를 適用해 보면 太陽之耳의 天時에 대해 넓게 통할 수 있지만 太陽之鼻은 人倫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없다. 太陽之聽은 天時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있으므로 太陽之神은 頭腦에 充足하여 肺로 돌아가는 것이 많고 太陽之嗅는 人倫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없으므로 太陽之血이 腰脊에 充足되지 못하여 肝으로 돌아가는 것이 작게 된다. 따라서 太陽之肺가 太陽之肝보다 크게 된다.

또 人事次元의 對對關係를 適用해 보면 太陽之脾는 交友에 대하여 勇統할 수 있지만 太陽之肝은 黨與에 대하여 雅立하지 못하므로 太陽之脾가 太陽之肝에 비해 相對的으로 크게 된다.

太陽의 腎은 항상 경계해야 할 竊心이 있어 이것을 극복해야 大人의 方略이 나온다 했으므로 太陽之腎과 對應되는 太陽之腎은 肺나 脾보다 機能的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太陽人에게 있어서는 항상 偏小之臟이 문제가 되어 太陽之臍에는 항상 경계해야 할 伐心이 있어 이것을 극복해야 絶世의 行檢이 나온다 했으므로 太陽人에게 있어 肝이 腎보다 機能的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太陽人에게 있어서는 肺-脾-腎-肝의 순서로 臟器의 機能的 大小가 定해짐을 알 수 있다. 나머지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도 같은 방법으로 類推해 볼 수 있다.

#### 가. 太陽人의 臟局大小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衆人之相欺也 哀性 非他 聽也

14. 肺呼聲하니 呼則必有應對之理라 以其直升之哀力으로 能達事務之斯也오. 脾主納하니 納則必有盈虛之理라 以其橫升之怒力으로 能合交遇之侮也오. 肝主吸하니 吸則必有致來之理라 以其放降之喜力으로 能立黨與之助也오. 腎主出하니 出則必有竭盡之理라 以其陷降之樂力으로 能定處之保也라. --『性命論自註』
15. 屬津海니 耳之根本이 耳屬脾則 太陰人은 脾小故로 耳無聽力이나 卓然 自有嗅思之才니 籌策也  
臆屬膏海니 目之根本이 目屬脾則 少陰人은 脾小故로 目無視力이나 坦然 自有味辯之才니 經綸也  
臍屬油海니 鼻之根本이 鼻屬肝則 太陽人은 肝小故로 鼻無嗅力이나 便然 自有聽學之才니 行檢也  
腹屬液海니 口之根本이 口屬腎則 少陽人은 腎小故로 口無味力이나 恢然 自有視問之才니 度量也  
--『性命論自註』
16. 頭之海는 神之所舍也니라 神之爲氣 光明而鑑造化하니 自有識見이니라. 此句之論은 太陽人言 而特學少陰人言者는 盖少陰이 出太陽而奪其母神故也니라.  
肩之膜海는 靈之所舍也라 靈之爲氣 嚴肅而酷態度하니 自有威儀니라. 此句之論은 少陽人言而 特學太陰人言者는 盖太陰이 生少陽而假其子靈故也니라  
腰之血海는 魂之所舍也라 魂之爲氣 顯達而奇行裝하니 自有材幹이니라. 此句之論은 太陰人言而 特學少陽人言者는 盖少陽이 出太陰而憑其母魂故也니라  
腎之精海는 魄之所舍也라 魄之爲氣 盛大而壯經營하니 自有方略이니라. 此句之論은 少陰人言而 特學太陽人言者는 盖太陽이 生少陰而恃其子魄故也니라 --『性命論自註』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 怒別人之  
侮己也 怒情 非他 怒也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而 太陽之鼻 不能廣博於  
人倫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而 太陽之肝 不能雅立於  
黨與

太陽之聽 能廣博於天時故 太陽之神 充足於頭腦  
而 歸肺者 大也

太陽之嗅 不能廣博於人倫故 太陽之血 不充足於  
腰脊而 歸肝者 小也

太陽之怒 能勇統於交遇故 交遇 不侮也 太陽之  
喜 不能雅立於黨與故 黨與 侮也

是故 太陽之暴怒 不在於交遇而 必在於黨  
與也

太陽之交遇 可以怒治之而 黨與 不可以怒治之  
若遷怒於黨與則 無益於黨與而 肝傷也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絕世之  
行檢 必在此也

太陽之腎 宜戒竊心 太陽之腎 若無竊心 大人之  
方略 必在此也

나. 少陽人の 臟局大小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怒性宏抱者 少陽之目 察於世會而 怒衆人之  
相侮也 怒性 非他 視也

哀情促急者 少陽之肺 行於事務而 哀別人之  
欺己也 哀情 非他 哀也

少陽之目 能廣博於世會而 少陽之口 不能廣博於  
地方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而 少陽之腎 不能恒定於  
居處

少陽之視 能廣博於世會故 少陽之氣 充足於背  
而 歸脾者 大也

少陽之味 不能廣博於地方故 少陽之精 不充足於  
膀胱而 歸腎者 小也

少陽之哀 能敏達於事務故 事務 不欺也 少陽之  
樂 不能恒定於居處故 居處 欺也

是故 少陽之暴哀 不在於事務而 必在於居  
處也

少陽之事務 可以哀治之而 居處 不可以哀治之  
若遷哀於居處則 無益於居處而 腎傷也

少陽之腹 宜戒 心 少陽之腹 若無 心 絕世之度  
量 必在此也

少陽之腰 宜戒懶心 少陽之腰 若無懶心 大人之  
材幹 必在此也

다. 太陰人の 臟局大小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喜性廣張者 太陰之鼻 察於人倫而 喜衆人之  
相助也 喜性 非他 嗅也

樂情促急者 太陰之腎 行於居處而 樂別人之  
保己也 樂情 非他 樂也

太陰之鼻 能廣博於人倫而 太陰之耳 不能廣博於  
天時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而 太陰之肺 不能敏達於  
事務

太陰之嗅 能廣博於人倫故 太陰之血 充足於腰脊  
而 歸肝者 大也

太陰之聽 不能廣博於天時故 太陰之腎 不充足於  
頭腦而 歸肺者 小也

太陰之樂 能恒定於居處故 居處 保也 太陰之哀  
不能敏達於事務故 事務 不保也

是故 太陰之浪樂 不在於居處而 必在於事  
務也

太陰之居處 可以樂治之而 事務 不可以樂治之  
若遷樂於事務則 無益於事務而 肺傷也

太陰之 宜戒驕心 太陰之 若無驕心 絕世之籌策  
必在此也

太陰之肩 宜戒侈心 太陰之肩 若無侈心 大人之

威儀 必在此也

라. 少陰人の 臟局大小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者 少陰之口 察於地方而 樂衆人之  
相保也 樂性 非他 味也

喜情促急者 少陰之肝 行於黨與而 喜別人之  
助己也 喜情 非他 喜也

少陰之口 能廣博於地方而 少陰之目 不能廣博於  
世會

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而 少陰之脾 不能勇統於  
交遇

少陰之味 能廣博於地方故 少陰之精 充足於膀胱  
而 歸腎者 大也

少陰之視 不能廣博於世會故 少陰之氣 不充足於  
背 而 歸脾者 小也

少陰之喜 能雅立於黨與故 黨與 助也 少陰之怒  
不能勇統於交遇故 交遇 不助也

是故 少陰之浪喜 不在於黨與而 必在於交  
遇也

少陰之黨與 可以喜治之而 交遇 不可以喜治之

若遷喜於交遇則 無益於交遇而 脾傷也

少陰之臆 宜戒矜心 少陰之臆 若無矜心 絕世之  
經綸 必在此也

少陰之頭 宜戒奪心 少陰之頭 若無奪心 大人之  
識見 必在此也

이와같이 四象體質에 따른 臟器의 大小를 아래표  
와 같이 設定할 수 있다.

(四象人の 臟器大小)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大 ↓ 小	肺	脾	肝	腎
	脾	肺	腎	肝
	腎	肝	脾	肺
	肝	腎	肺	脾

2. 性情氣의 陰陽

〈內經〉에서는 五志(怒喜思憂恐)와 悲驚을 合하여 七情을 感情의 統稱으로 使用했으며 清代 戴 震은 그의 〈孟子字義疏證〉<sup>17)</sup>에서 人間의 心作用을 세 방면으로 나누고 특히 情은 喜怒哀樂의 넷으로 發出함을 說明하고 있으며 七情中の 愛와 慾은 心欲之事이고 惡은 是非를 分別하는 心知之事임을 밝히고 있다. 喜怒哀樂은 각 感情의 狀態에서 氣의 升降上下하는 運動方向을 設定할 수 있는 반면 愛惡欲은 分別知 또는 순수한 心慾의 表現으로서 氣動의 方向을 定하기가 困難하다.<sup>18)</sup>

〈中庸〉에서는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이라하여 人的 感情을 喜怒哀樂 四者로서 概括하였는데 이를 始發로 하여 그 후의 中國 철학자들 및 조선의 性理哲學者들도 대개 喜怒哀樂으로서 七情을 代辯하거나 兩者를 同一한 意味로 使用하였다.

喜怒哀樂은 性과 情 그리고 氣로 表現되는데 性으로서의 喜怒哀樂은 耳目鼻口가 天機를 察할 때 드러나는 聽視嗅味之力으로서 天性(自然的 性品)을 말하며 性이 氣로 作用될 때는 대체로 順動하게 되어 臟器에 注하면 益盛하게 만들며 情은 促急한 性質을 가지며 肺脾肝腎이 人事를 行할 때 드러나는 喜怒哀樂의 表출적 感情으로 情이 氣로 作用할 때는 대체로

17. “人生而後有欲有情有知 三者血氣心知之自然也 給予欲者 聲色臭味也 人而有慘舒辨于知者 美醜是非也 人而有好惡”

18. 池圭鎭, 安圭錫, 性情의 作用機轉에 關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Vol 5 No.1, p.54, 1993.

逆動하게 되어 臟器를 激하여 益削하게 만든다<sup>19)</sup>. 喜怒哀樂 四氣의 性質은 中焦를 中心으로 陽性 氣運(哀怒之氣)은 上升하고 陰性 氣運(喜樂之氣)은 下降하게 되는데 哀氣는 直升, 怒氣는 橫升, 喜氣는 放降, 樂氣는 陷降하게 되며 相成相資의 原理에 의해 동일 氣運끼리 作用하게 되니 性極則情動의 원리가 이것이다<sup>20)</sup>. 四氣가 順動하게 되면 陽의 氣運인 哀怒之氣는 順而上升하고 陰의 氣運인 喜樂之氣는 順而下降하게 되며, 四氣가 逆動하게 되면 哀怒之氣(陽性)는 폭동하게 되어 下焦(陰)를 傷하고 喜樂之氣(陽性)는 浪動하게 되어 上焦(陽)를 상하게 된다<sup>21)</sup>. 그림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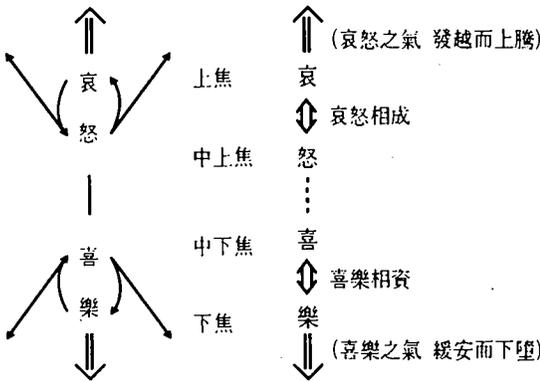


그림 3. 四氣의 相成相資의 升降原理

性情에 의해 臟局의 大小가 生길 뿐만 아니라 疾病에도 影響을 미치게 되는데, 情氣의 暴動, 浪動에 의해 臟器가 傷하게 되는 病證, 相成/相資의 원리에 의해 性極則情動으로 傷하게 되는 病證, 陽人은 喜樂을 陰人은 哀怒를 强做하게 되어 더욱 虛動하게 되는 病證, 性是 表氣를 傷하고 情은 裏氣를 傷하게 되는 病證등이 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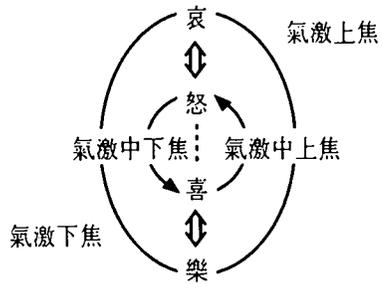


그림 4. 四氣의 臟局逆上의 原理

### 3. 水穀四氣의 陰陽

<醫學正傳>에 보면 “水穀之精이 陰陽으로 化하여 榮衛를 운행하게 되는데 飲食이 崑로 들어가면 그

19.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則 氣注肺而 肺益盛 怒情促急則 氣激肝而 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怒性宏抱則 氣注脾而 脾益盛 哀情促急則 氣激腎而 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喜性廣張則 氣注肝而 肝益盛 樂情促急則 氣激肺而 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則 氣注腎而 腎益盛 喜情促急則 氣激脾而 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四端論』
20.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 怒情動 怒性極則 哀情動 樂性極則 喜情動 喜性極則 樂情動”-『四端論』
21.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上升之氣 過多則 下焦傷 下降之氣 過多則 上焦傷  
哀怒之氣 順動則 發越而上騰 喜樂之氣 順動則 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 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 順而下降  
哀怒之氣 逆動則 暴發而 竝於上也 喜樂之氣 逆動則 浪發而 竝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 竝於上則 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 竝於下則 脾肺傷 --『四端論』

濁한 것이 찌꺼기가 되어 밑으로 幽門에 나가고 大小腸에 達해서 糞이 되어 가지고 穀道로 나가는 것이요, 그 맑은 것은 化해서 氣가 되고 脾氣에 의해서 위로 肺에 오르고 또 거기서 지극히 淸하고 지극히 精한 것은 肺로 말미암아 四肢에 灌溉해서 汗涎과 津唾가되어 血脈을 돕고 氣力을 더하여 生生不息의 運用을 하고 그 淸한 中의 濁한 것은 밑으로 膀胱에 들어가서 오줌이 되어 나오고 膀胱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은 아직 濁氣가 되어 있고 이미 들어가서 膀胱의 안에 있는 것은 곧 化해서 물이 되는 것이다<sup>22)</sup>”라 하여 飲食의 陰陽淸濁에 따라 上升과 下降이 設定되는데 四象醫學에서는 飲食에 의해서 보다는 四腑自體 모양에 따른 陰陽의 偏差에 따라 上下升降의 원리로 淸濁分別된다. 水穀의 代謝經路는 胃脘을 거쳐 胃, 小腸, 大腸, 肛門을 通過하여 排出되게 된다. 水穀은 胃脘에서 停畜되고 薰蒸되면 熱氣가 되고, 小腸으로 消導되어 平淡한 涼氣가 되고, 熱氣中 輕淸한 것은 胃脘으로 上升하여 溫氣가 되고, 涼氣中의 質重한 것은 大腸으로 下降하여 寒氣가 된다고 하였다. 四氣가 이렇게 生成되는 이유는 “胃脘通於口鼻 故水穀之氣上升也, 大腸通於肛門 故水穀之氣下降也, 胃之體廣大而包容 故水穀之氣停畜也, 小腸之體狹窄而屈曲故 水穀之氣消導也”라 하여 구조에 따른 氣의 上下升降을 직관적으로 관찰하였다.

既存醫學과 四象醫學에 있어서 飲食의 代謝過程은 淸氣(陽性)는 上升하고 濁氣(陰性)는 下降한다는 점에 있어서 基本原理는 같으나, 四象醫學에서는 四腑自體의 模樣에 따른 氣의 陰陽的 偏差가 注目하여야 될 점이며, 中焦(中上焦, 中下焦)를 中心으로한 上下升降을 重視했다.

#### 4. 水穀四氣의 原動力과 四海

水穀四氣의 代謝經路에 따라 肺黨(胃脘 舌, d, 頭腦, 皮毛), 脾黨(胃, 兩乳, 目, 背脊, 筋), 肝黨(小腸, 臍, 鼻, 腰脊, 肉), 腎黨(大腸, 前陰, 口, 膀胱, 骨)의 四系列로 나누어진다. 代謝過程은 舌下/ 間兩乳/ 臍/ 前陰毛際之內에서 津膏油液, 前四海(津海, 膏海, 油海, 液海)를 형성하고 頭腦/ 背脊/ 腰脊 膀胱에서 神氣血精, 後四海(d 海, 膜海, 血海, 精海)를 이룬다. 耳目鼻口는 天機(天時, 世會, 人倫, 地方)의 聽視嗅未之力으로 前四海의 淸氣를 提出하여 四焦에 充滿하게 하여 神氣血精이 되게 하고, 頭腦/ 背脊/ 腰脊/ 膀胱으로 보내어 後四海를 이루게 한다. 肺脾肝腎은 人事(事務, 交遇, 黨與, 居處)의 哀怒喜樂之力으로 後四海의 淸汁을 吸得하여 스스로의 근원(肺元, 脾元, 肝元, 腎元)을 滋하고 前四海를 擁護하면서 그 氣를 鼓動시켜 津膏油液을 凝聚시킨다. 그러므로 耳目鼻口之用과 肺脾肝腎之用의 여하에 따라 前後四海의 物質形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耳目鼻口之用(聽視嗅味)이 深遠廣大하면 精神氣血이 生하고 淺近狹小하면 精神氣血이 소모된다. 또한 肺脾肝腎之用(學問思辨)이 正直中和하면 津膏油液이 充滿하게 되고 偏倚過不及하게 되면 津膏油液이 하게 된다. 四腑之力(上升, 停畜, 消導, 下降之力)은 前四海의 濁滓를 取하여 스스로를 補益하고 頭手腰足之力(直伸, 能收, 寬放, 屈強之力)은 後四海의 濁滓를 鍛鍊하여 皮毛筋肉骨을 生成한다. 前四海는 意慮操志를 藏하고 後四海는 神靈魂魄을 藏한다. 後四海는 肺脾肝腎의 根本이 되며 前四海는 耳目鼻口의 根本이 된다. 이는 前四海에서 後四海를 形成하는 과정에 耳目鼻口의

22. 許浚,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p. 634,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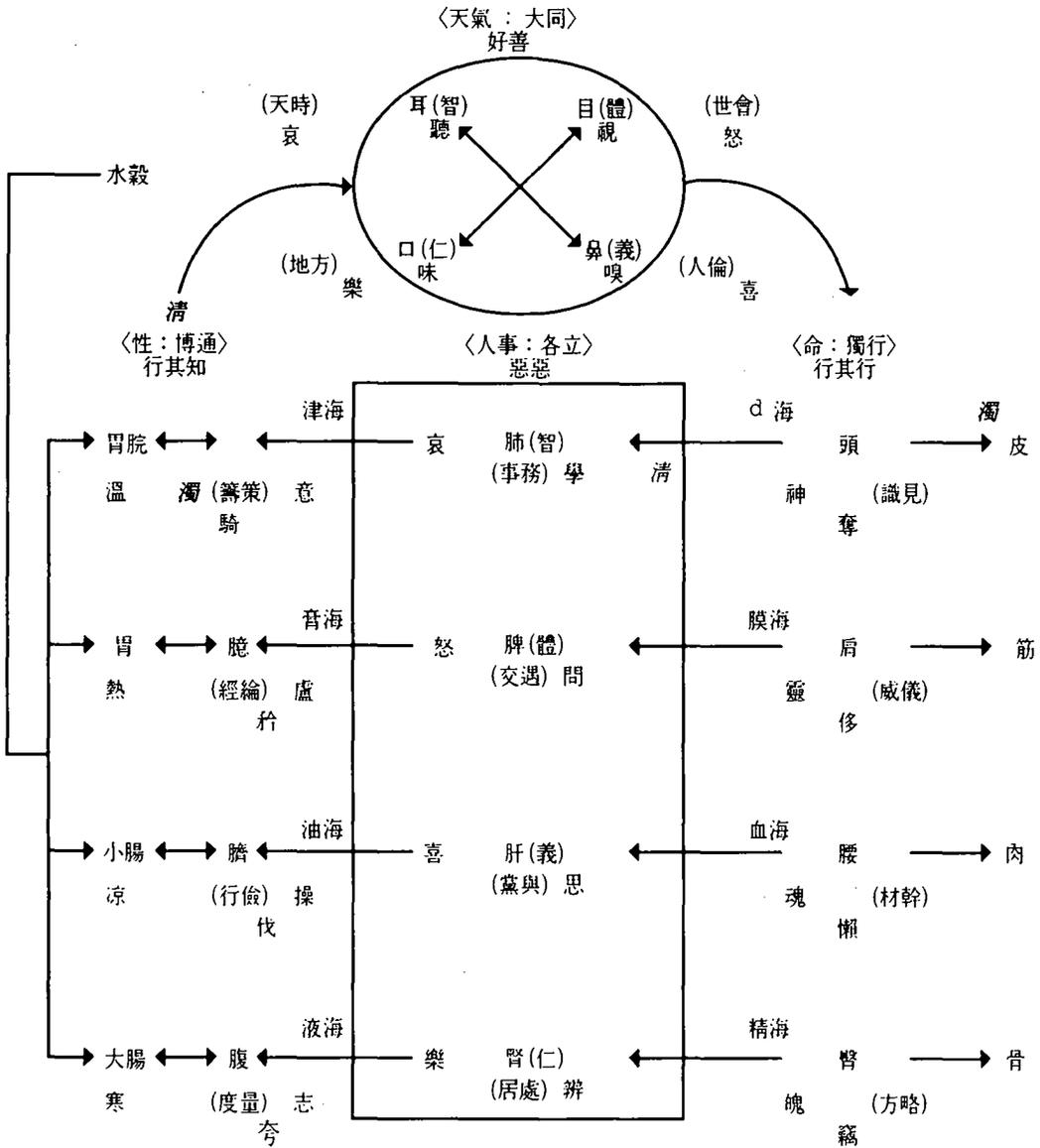


그림5 四象臟腑論의 人體構造

聽視嗅味之力이 관여하고 後四海의 清汁으로 前四海의 津膏油液을 凝聚시키는 데는 肺脾肝腎의 哀怒喜樂力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各黨內에서는 前後四海를 중심으로 性( 臆臍腹)→天(耳目鼻口)→命

(頭肩腰腎)→人(肺脾肝腎)→性( 臆臍腹)으로 上下前後循環 構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前後循環이 잘 되면 그 黨은 더욱 커지고 充足해질 것이다. 지금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李濟馬는 臟腑論에서 性情

에 의한 天機와 人事가 대사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함으로써 哲學과 醫學의 만남을 시도하였다.

그림5) 대전대 한의학과 장현진 교수님 작

### 5. 四象醫學에 있어서의 心

既存의 醫學에서 心의 概念은 五行中 火의 개념으로 “心者君主之官，神明出焉”-〈素問·靈蘭秘典論〉，“心 君臟也 神明居焉 … 心者一身之主，君主之官，有血肉之心，形如未開蓮花，居肝上肺下是也 有神明之心，神者，氣血所化生之本也，萬物由之盛長”-〈醫學入門〉등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형태적으로 有形的인 心臟과 機能的으로 一身의 精神과 肉體를 주관하는 心이란 兩面性を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重要性이 인정되면서도 心은 他臟과 마찬가지로 相生相剋의 規律下에서 五行中의 한 종류인 火의 臟器라는 것에 더 重點을 두고 있다. 그러나 四象醫學에서는『獨行篇』에서는 心을 理心(仁義禮智)과 利心(鄙薄貪懦)으로 구분하였고 『儒略篇』에서는 〈大學〉

의 四心과 鄙薄貪懦之心，〈孟子〉의 四端之心(惻隱，羞惡，辭讓，是非之心)과 仁義禮智之心 등을 中心으로 四象類型의 心을 보여준다. 〈格致藁·反省箴〉에서는 “太極之心 中央之心也 心身之心 兩儀之心也 事心身物之心 四象之心也”로 本體論的 立場에서의 心을 보여 주었으며 君子之心(易知之心)과 小人之心(難知之心)으로 二元的 分類를 하였으며 人心과 道心，理心과 敬心으로 分離하기도 하였다. 또한 性理는 純善한 것이라 聖人/君子/小人이 一同하는 것으로 易知에 歸屬되고 心慾은 善惡을 同時에 包含하는 것으로 聖人/君子/小人이 萬殊하며 難知에 歸屬된다 하였다.<sup>23)</sup> 이와 같이 二元論的 概念과 四象類型의 說明으로 心性을 파악하려 하였으며 『性命論』<sup>24)</sup> 『四端論』<sup>25)</sup> 『臟腑論』<sup>26)</sup>을 통해 볼 때 心의 概念은 一身의 主宰로서 天人性命 모두를 統率하게 됨을 알 수 있다.

## Ⅲ. 총괄 및 고찰

人體의 構造的 陰陽에 있어서는 李濟馬 『性命論

23. 以一人之心 而有君子之心焉 有小人之心焉 君子之心 易知 小人之心 難知 易知之心多而難知心 少者 名曰君子 難知之心多 而易知之心 少者 名曰小人 性純善也 聖人與君子小人一同也 心可 以善惡也 聖人與君子小人萬殊也 性理也 未來也 聖人 與君子小人 一同理於未來也 心欲也 現在 也 聖人與君子小人 萬殊欲於現在也 一同者 善也 一同故 易知也 萬殊者 惡也 萬殊故 難知也 --〈格致藁·反省箴〉  
 人心惟危 危之於欲則 心出而不入也 心出而不入則 僥倖於天 而不順天也 道心惟微 微之於念則汚而不隆也 身汚而不隆則 固陋於人而不信人也 理心惟精精之於理則欲可制而 能順天而中也 順天而中者 知也 敬心惟一 一之於敬則 怠可警而能信人正也 信人而正者 行也--〈格致藁·反省箴〉<sup>24)</sup> 有驕心 臆有矜心 膺有伐心 腹有 心 驕心 驕意也 矜心 矜慮也 伐心 伐操也 心 志也 頭有攬心 肩有侈心 腰有懶心 臀有慾心 攬心 奪利也 侈心 自尊也 懶心 自卑也 慾心 竊物也 人之耳目鼻口 好善 無雙也 人之肺脾肝腎 惡惡 無雙也 人之 臆膺腹 邪心 無雙也 人之頭肩腰腎 怠心 無雙也 --『性命論』

25.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四端論』

26. “心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 中 光明瑩澈 耳目鼻口 無所不察 肺脾肝腎 無所不付 臆膺腹 無所不誠 頭手腰足 無所不敬”--『臟腑論』

自註』에 天機를 解釋함에 있어 天不足 西北이고 地不滿 東南이라 하여 天時의 氣運은 耳目을 通해서 그리고 地方의 氣運은 手足을 通해 解釋하였다. 陽人(天)은 下焦(地) 不足으로 太少陽人은 左手足이 右手足만 못하여 行去之력에 있어 太少陽人의 手足은 太少陰人의 手足에 미치지 못하고, 陰人(地)은 上焦(天) 不足으로 太少陰人의 右耳目은 左耳目만큼 聰明치 못하여 視聽之력은 太少陰人의 耳目이 太少陽人의 耳目에 미치지 못한다 하였고, 또한『辨證論』에도 少陽人의 體型은 上體가 盛하고 下體가 弱하다 했고, 太陽人 女子 體型은 壯實하지만 肝部位가 弱하여 出産(生殖力)이 不足하다 하여 上下體의 陰陽相對의 不均衡을 提示했다.

四焦論에 대한 설명은 既存의 三焦의 部位와 臟器의 相應部位는『四端論』의 逆動之氣가 臟腑를 傷하는 部位와 유사하며 四焦의 部位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李濟馬는 既存의 醫學과 동떨어져 四焦를 設定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哲學의 틀인 四元構造로 四焦를 設定하게 되었으며 이 四焦를 기준으로 각 四象人마다 盛壯하고 孤弱한 곳을 갖게 되는『辨證論』의 體形氣象을 이끌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人體의 構成과 生理 및 病理를 說明함에 있어 耳目鼻口(天), 肺脾肝腎(人), 臍膈腹(地, 性), 頭肩腰腎(行, 命)의 四元構造를 이용하여 陰陽의 對對關係로 說明하고 있다. 各 四象人에게 있어서 四臟의 機能的 大小는 性이 作用하는 臟器는 가장 크게 되고, 中庸之臟은 次大가 되며, 情이 작용하는 臟器와 相成相資하는 臟器는 그 다음이 되고, 情이 촉급되는 臟器는 가장 작게 되어 각 四象人의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의 機能에 따른 臟器의 大小가 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四象人이 설정되게 된다. 性이 氣로 作用할 때는 順動하여 臟器를 益盛하게 하고 情이 氣로 作用할 때는 逆動하여 臟器를 益削하게 한다. 哀怒喜樂의 四氣는 中焦를 中心으로 陽

性(哀怒)氣運은 上升하고 陰性(喜樂)氣運은 下降하며, 逆動하게 되면 陽性氣運(哀怒之氣)은 暴動하게 되어 陰의 部位인 下焦를 傷하고, 陰性氣運(喜樂之氣)은 浪動하게 되어 陽의 部位인 上焦를 傷한다. 水穀四氣의 陰陽觀은 既存醫學과 四象醫學의 水穀의 代謝過程中 清氣는 上升하고 濁氣는 下降하는 基本原理는 같으나 四象醫學에서는 四腑自體의 模樣에 따라 水穀四氣의 陰陽의 偏差가 정해져 中焦를 中心으로 上下升降을 이루게 되어 溫熱涼寒의 四氣가 形成된다.

水穀四氣는 代謝過程中 前四海, 後四海를 形成하며 各黨內에서는 前後四海를 中心으로 性(臍膈腹)→天(耳目鼻口)→命(頭肩腰腎)→人(肺脾肝腎)→性(臍膈腹)으로 上下前後循環構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心의 概念은 一身의 主宰者로서 天人性命 모두를 統率하게 됨을 알 수 있다.

## IV. 結 論

이상의 考察을 통하여 既存醫學의 陰陽觀과 四象臟腑論을 中心으로 한 陰陽觀을 比較해 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다.

1. 人體 構造의 陰陽觀에서 既存醫學은 頭面, 四肢, 軀幹를 利用하였고 四象醫學은 頭面(耳目鼻口) 軀幹 手足을 利用하여 上下 陰陽(上盛下虛, 上虛下實)의 基準으로 比較 使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既存醫學에서는 三焦를 水穀代謝를 調節하는 通路로서의 機能的 意味와 上, 中, 下部位로서의 意味로 使用하였고, 四象醫學에서는 四焦로 區分하여 各體質의 體型氣象 및 前後四海를 中心으로 한 循環構造로서의 四黨을 포함한 包括的 意味를 가진다.

3. 四象醫學을 說明하는 對待構造는 全體 次元은

天↔人, 性↔命으로, 耳目鼻口↔肺脾肝腎, 臆臍腹↔頭肩腰腎이 對待이고, 天機 次元(性)은 天↔性, 人↔命으로 耳↔鼻/ 目↔口, 臆↔臍 臆↔腹이 對待이어서 太陽↔太陰 少陽↔少陰이 짝이 되고, 人事 次元(情)은 天↔命/ 人↔性으로 肺↔腎 脾↔肝, 頭↔腎/ 肩↔腰로 太陽↔少陰 少陽↔太陰이 짝이 된다고 要約할 수 있다.

4. 各 體質속에서 性情에 의한 臟局의 大小를 大-小順으로 比較하면 太陽人은 肺→脾→腎→肝이고, 太陰人은 肝→腎→脾→肺이며, 少陽人은 脾→肺→肝→腎이고, 少陰人은 腎→肝→肺→脾로 要約할 수 있다.

5. 性情의 認識은 既存醫學에서는 七情을 使用했는데 비해 四象醫學에서는 喜怒哀樂을 사용하여 性情氣로 區分하여 認識하였고 哀怒之氣는 陽으로 上升하고, 喜樂之氣는 陰으로 下降하며 相成, 相資의 특성과 順動, 逆動의 特性을 가진다.

6. 水穀四氣는 代謝過程에서 四腑의 모양과 中焦(中上, 中下)를 中心으로 한 陰陽의 偏差에 따라 溫熱之氣와 涼寒之氣의 四氣로 나누어진다.

7. 各黨內에서는 前後四海를 중심으로 性(臆臍腹)→天(耳目鼻口)→命(頭肩腰腎)→人(肺脾肝腎)→性(臆臍腹)으로 上下前後循環을 하며 臟腑의 大小에 의한 上下 臟局循環도 일어난다.

8. 四象醫學의 心은 一身의 主宰로서 耳目鼻口, 肺脾肝腎, 臆臍腹, 頭肩腰腎을 통솔한다.

## 參 考 文 獻

1. 郭霽春編著. 黃帝內經靈樞校註語譯. 서울. 一中社 p.178~181. 1992.

2. 大韓東醫生理學會編.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p.350~361. 1993.

3. 尙志大 3期 卒準委. 筆花醫鏡. 서울. 정담. p.125..

4.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p.8. 1986 .

5. 李i .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p.79~80. 1989.

6.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 서울. 김문당. p.29~140. p.434~443. p.495~496. 1997.

7.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승리회출판사. 1967.

8.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內景, 外形篇〉. p.139, 386, 387, 389, 414, 423, 429. 〈雜病篇〉. p.17, 166, 184. 1992.

9. 許浚.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634. 1995 .

10. 凌耀星主編. 難經校注.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p.115. 1991.

11. 李今庸主編. 新編黃帝內經綱目.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36. 1988.

12. 王琦外4人編著. 素問今釋. 中國. 貴州人民出版社. p.26, 42, 86. 1981.

13. 金鍾元, 高炳熙, 宋一炳.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對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2. No.1. p.93~95, 1990.

14. 宋正模, 高炳熙, 宋一炳. 『性命論』을 中心으로 한 李濟馬의 四象觀에 對한 考察. vol.2, No.1 p.51-53. 1990.

15. 池圭鎔, 安圭錫. 性情의 作用機轉에 關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Vol 5 No.1. p.54. 1993.